

# “국가폭력 맞선 소년처럼...작금의 혼란 제대로 청산해야”

한강 작가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강연

5·18 다룬 ‘소년이 온다’ 출간 뒤 블랙리스트 올라

고통 이겨내는 힘은 사랑...다음 작품의 주제 될 것

“지금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시국’과 유사하다. 작금의 혼란을 계기로 청산되지 않은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광주 출신 한강이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하는 ‘치유의 인문학’ 강사로 나서 시민들을 만났다.

한 작가는 지난 13일 오후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한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우리는 왜, 어떻게 무엇인가를 쓰게 되는 것일까”라는 화두를 토대로 글을 쓰는 의미와 광주의 오월에 관한 단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강연에는 중고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 800여 명의 청중들이 모여 광주가 낳은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작가는 강연 시작을 소설 ‘소년이 온다’ 일부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소설 내용 가운데 곁을 다른 부분을 읽어주는 동안 강연장은 숙연했다.

‘소년이 온다’는 80년 5월 광주의 열흘



간의 상황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소설은 국가의 부조리한 폭력에 맞서 시위현장으로 나서야 했던 어느 소년의 깨끗한

양심을 절절하게 풀어낸다. 한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펴낸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다며 “아직까지 5·18 참상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뼈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정부 측이 선정하는 세종도서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직접 한 작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그리고 탈고한 이후에도 악몽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가는 “당시를 체험한 피해자들에 바쳐진 악몽은 아

무것도 아니지만, 작가로서 그 같은 고통은 내 삶의 일부로 껴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작가는 “서울 연희문학창작촌 옆에 (전두환 전 대통령)집이 있다”며 “외국에서 작가들이 오면 이곳에서 묵기도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 이후로 한동안 글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5월의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후에 펴낸 작품 ‘흰’은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는, 순수한 것을 상징해서 쓴 것으로, 이 세상 흰 것들에 대한 비가”라고 덧붙였다.

요즘 시국과 연계한 향후 작품 계획에 대해서도 작가는 담담하게 밝혔다.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읽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독자들을 많이 만났다”며 “요즘 이런 저런 일들로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은데, 고통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과 삶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세상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며 “앞으로의 작품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치유의 인문학’강연에서 이날 강사로 참여한 한강 작가가 광주 오월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낭독하기 위해 책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영수 특검 ‘70일 승부’...“내년 2월말 수사 완료”

법정 수사기간 연장 땀 대통령 승인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엄정,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모든 수사를 법정 기간에 끝낸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준비 단계로,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사 준비 기간이 다음 주 초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의 법정 수사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 기간에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법리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특검팀(수사)의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승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법정 기한인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권 아니라 특검 수사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이 특검보의 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결과가 현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도록 압박하는 요인이다.

특검팀이 법정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 연장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 ‘1차’ 기한 내에 최대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또 내년 초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연합뉴스

## 특검 윤석열 검사 ‘특수부장’ 역할

김기춘·우병우나 대기업 기금 출연 전담할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 ‘좌장’ 역할을 하는 수사팀장인 윤석열(56·연수원 23기) 검사가 어떤 임무를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검사에 대한 관심은 그의 비중과 역할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 특검은 임명 하루 뒤인 이날 1일 ‘인선 1호’로 윤 검사를 지명하고 ‘수사팀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을 맡겼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가 어떤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윤 검사는 이번 특검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건을 출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윤 검사가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임증이 까다로운 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크게 ‘김기춘·우병우 의혹’이나 ‘대기업의

기금 출연 및 뇌물 의혹’ 가운데 하나로 점쳐진다.

우선 특검 수사의 난제로 꼽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가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두 사람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목인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과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사안 역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해놓고도 마지막 결론을 유보한 만만치 않은 현안이다. 이럴 경우 특수통에서도 공작자 비리에 일가견이 있는 윤 검사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한동훈(43·27기) 검사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검사 20명에 이어 파견공무원 40명도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기도 넓혀 주는 감태

협착증 억제 물질 발견

해조류인 감태가 기도가 좁아지는 기도협착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감태에 함유된 천연 소재 ‘폴로로탄닌’이 기도협착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로 밝혀졌다고 14일 밝혔다.

정원교 부경대 교수 연구팀과 옥철호 고신대 교수 연구팀은 기도가 협착된 두 마리 토끼에 폴로로탄닌을 코팅한 튜브와 코팅하지 않은 튜브를 1주일 동안 삽입한 후 4주에 걸쳐 비교·관찰했더니 코팅된 튜브를 넣은 토끼의 기도가 훨씬 덜 좁혀진 사실을 확인했다.

폴로로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알레르기에 효과가 큰 성분으로, 기도협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기존에 기도가 좁아지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약물은 독성이 강해 구토, 설사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지만 폴로로탄닌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돼 기존 약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가중 1억원 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종나우부리 감칠)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강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